

정보출처의 집단범주 및 능력과 반응유형에 따른 집단극화 효과

성한기 · 한덕웅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집단극화를 설명하는 대표적 세 이론으로부터 각기 다르게 예언되는 반응유형과 정보출처의 효과를 112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실득주장이론은 사적반응에서, 사회비교이론은 공적반응에서, 반면에 자기범주화이론은 공, 사의 모든 유형에서 집단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한다. 그리고 자기범주화이론은 내집단만이 극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두 이론은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론들간의 이와 같은 차별적 주장들을 비교 검증함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의 수행 능력 수준에 따라서 반응유형과 정보출처의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을 근거로 사적반응은 내/외집단 능력에 관한 정보의 영향을 받고, 공적반응은 정보출처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공적반응의 극화량이 사적반응의 극화량보다 더 컸으며, 유능한 집단의 극화량이 무능한 집단의 극화량보다 더 컸다. 이를 토대로 집단내 영향 과정의 본질 등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집단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이면서 가장 핵심 주제 중의 하나는 집단과 개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와 사회촉진(social facilitation)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 집단 의사결정과 집단수행 분야의 이론적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 가운데 집단 토의나 정보 교환을 통한 집단 상호작용 이후 집단이 합의하여 결정한 반응 또는 개인 반응의 평균이 상호작용 이전의 개인 반응 평균보다 더 극단적인 현상으로 정의(Myers & Lamm, 1976)되는 집단극화는 집단 연구에 대한 관심이 퇴조했던 1960 - 1970년대에도 활발히 연구되었음은 물론, 지금

까지도 새로운 설명 이론들(예, Brauer & Judd, 1996; Crott & Werner, 1994; Liu & Latane, 1998)이 계속 제안되고 있다.

집단극화 현상이 끊임없이 주목받아온 이유는 집단의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쟁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 현상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집단극화는 주로 실험실에서 검증되어 왔지만, 배심원의 판단(Hastie, Penrod & Pennington, 1983), 도박이나 경마(Blascovich, Ginsburg & Howe, 1975), 그리고 테러집단의 폭력행위(McCauley & Segal, 1987) 등 실세계의 다양한 장면에서 관찰된다. 또한 성한기

(1989)는 대학생들의 보수성향을 3-4년 간격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 대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더 진보화됨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집단극화는 특수한 사회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현실에 편재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집단극화 연구가 주목을 끄는 또다른 이유로는 집단-개인 차이에 초점을 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일련의 현상들, 예를 들어 집단강화¹⁾(group accentuation: Hinsz, Tindale & Vollrath, 1997; Tindale, 1993), 개인간-집단간 비연속성²⁾(interindividual-intergroup discontinuity: Insko, Schopler, Hoyle, Dardis & Graetz, 1990; Insko & Schopler, 1998) 및 집단 자신감³⁾(Sniezek, 1992) 등에 관한 연구를 직간접으로 자극함으로써 최근의 집단 연구의 부흥(한덕웅, 1995, 1996; Abrams & Hogg, 1998; Levine & Moreland, 1998; Moreland, Hogg & Hains, 1994)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 과정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된 배경 요인들 가운데 이론의 측면에서는 집단내 역학과 집단간 관계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의 역할이 크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집단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대신 이론을 제안하기 위하여 자기범주화이론을 적용했다. 이들은 자기범주화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다른 이론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일을 주목표로 삼음으로써 이 현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극화를 설명하는 3가지 대표적 이론들, 즉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설득주장이론(persuasive arguments theory) 및 자기범주화이론으로부터 각기 다르게 예언되는 부분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에 관련되는 세 이론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 상호 비교하기로 한다(이론들에 관한 상세한 설

명은 성한기(1991, 1999), 전반적 개관에 대해서는 성한기(1991)와 BarNir(1998) 참조).

설득주장이론

이 이론(Vinokur & Burnstein, 1974; Vinokur, Trope & Burnstein, 1975)에 의하면 집단극화는 토의 중에 타인들이 제시하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집단 토의 동안에 개인들은 토의 전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새롭고 그럴듯한 주장들을 접하게 되고 이와 아울러 집단구성원들의 전반적 성향도 파악하게 된다. 새로 접한 주장들 중에서 집단 성향과 일치하는 주장들은 반대되는 주장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설득력있다고 지각되며, 설득적 주장의 영향을 받아서 토의 후 개인의 의견은 집단의 전반적 성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집단 토의 후 집단이 합의한 반응이나 개인 반응의 평균은 토의 전 개인 반응들의 평균보다 더 극단화된다. 그런데 이 이론에는 집단의 전반적 성향과 일치하는 주장이 왜 설득적으로 지각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없다. 성한기(1991, 1996)는 이에 관해서 집단 성향은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집단의 전반적 성향과 일치하는 주장은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게 지각된다고 해석하였다.

사회비교이론

이 이론(Brown, 1974; Myers, 1978)은 집단구성원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타인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기를 바라고, 집단 상호작용 전에는 타인들의 바람직한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 토의 등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비교 결과, 자신의 의견이 타인보다 덜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1) 집단구성원들이 지닌 정보처리 경향성이나 오류 또는 편파가 집단 상호작용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는 현상. 집단극화는 반응의 극단화를 의미하는 반면에, 집단강화는 반응 이전의 집단 정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뜻한다(Hinsz et al., 1997).

2) 죄수궁지게임(PDG)에서 집단이 개인보다 더 경쟁적인 경향.
3) 집단은 그들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개인보다 더 자신감을 보이고 집단토의를 하면 자신감이 더 커진다.

타인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 따라서 집단 상호작용 후 구성원 전체의 입장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방향으로 극단화된다. 결국,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토의에서 교환되는 설득적 주장보다 자기와 타인들의 입장을 비교한 정보가 집단극화의 결정 요인이다(성한기, 1987; Goethals & Zanna, 1979; Myers, Bruggink, Kersting & Schlosser, 1980).

Deutsch와 Gerard(1955)가 제안한 사회적 영향의 유형별 구분에 비추어 보면 사회비교는 타인의 기대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규범적 영향(normative influence)을 반영하고, 설득주장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진실로서 받아들여도록 하는 정보적 영향(informational influence)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은 사회적 장면에서 대체로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Forsyth, 1990; Kaplan, 1987; Stasser, Kerr & Davis, 1980),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의 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얽혀있다(Lamm & Myers, 1978; Miller, 1978).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두 이론이 어떤 형태론든 사회 문화적 가치와 연결되는 점으로부터도 유추될 수 있다.

자기범주화이론

이 이론에서는 집단극화를 극단화된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 현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 정체로부터 집단 동일시를 통해서 사회적 정체로 정체성이 변화됨으로써 사회적 영향의 전제 조건이 마련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이 이론은 앞의 두 이론들이 집단 안에서 대인간 영향 과정을 중요시하는 바와 달리 집단 고유의 역동성을 중요시한다(Turner, 1985; Turner et al., 1987; Turner & Oakes, 1989).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집단에 동일시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내집단 규범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내집단 규범과 불일치되는 태도나 행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주관적 불확실성을 유발하는데, 이 불확실성은 지각된 내집단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감소된다(Hogg & Abrams, 1988). 즉, 내집단은 집단구성원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이다. 이런 점에서 내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는 다수의 압력에 대한 비합리적 굴복이기보다 일종의 매우 적응적인 자기-고정관념화 과정이다(Hogg & Turner, 1987).

Turner(1985, 1991)는 전통적 사회비교이론의 설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영향을 주관적 타당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어떤 정보의 타당성은 집단 내 사회비교를 통해서 확립되기 때문에 언제나 집단 내 규범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두가지 사회적 영향을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고 2중 영향 과정 모형을 비판하고, 준거정보적 영향(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이라는 단일 과정을 제안하였다. 준거정보적 영향이란 타인이 내집단의 일원이며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이 내집단의 규범적 입장이라고 지각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자기범주화이론의 기본 틀을 이룬다.

그런데 내집단 규범은 내집단에서 구성원들간의 차이를 극소화하고 외집단과는 차이를 극대화한 지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내집단 구성원들이 지닌 입장의 평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기범주화이론에 따르면 내집단 평균과 규범이 일치하는 조건에서는 동조가 일어나고, 이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화가 일어난다. 이 때 일치의 여부는 내집단 평균이 주관적 준거들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내집단 평균이 흔히 일반적 반응 척도에서 중간점에 해당하는 주관적 준거들의 중심에 위치하면 내집단 규범도 내집단 평균과 일치해서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집단 평균이 주관적 준거들의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내집단 규범은 내집단 평균보다 동일 방향으로 더 극단적 위치에 놓인다고 지각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집단 규범에 동조하게 되면 집단극화가 나타나게 된다(Wetherell, 1987).

세 이론의 비교

세 이론들 모두 지지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특히 설득주장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은 각기 상당량의 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이론간에 설명이 세부적으로 상치되는 부분들이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어서, 이 상치점들을 해결하는 과제가 극화현상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각 이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론의 정교화에 기여하게 된다. 세 이론을 대비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집단 과정과 개인 과정의 환원성(reductionism)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개인의 의견 혹은 태도의 극화를 집단 결정에서의 극화와 양적 연속선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범주화이론과 다른 두 이론간에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기범주화이론에서 보면 집단은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므로 개인 과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독특한 역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집단 현상이 개인내 및 개인간 과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비환원주의 관점을 견지한다(Hogg & McGarty, 1990; Turner & Oakes, 1989). 집단극화 현상의 경우에도 집단의 소속감을 촉진 또는 저해시키는 요인, 예를 들어 공동 운명의 지각(Kogan & Carlson, 1969) 또는 경쟁적 외집단의 존재(Skinner & Stephenson, 1981) 등이 집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개인 수준이 아니라 집단이 매개된 현상임을 강조한다. 자기범주화이론가들은 설득주의론과 사회비교이론에서 집단 토의를 기껏해야 무선적 효과만을 가지는 중립적 환경 요인으로 간주하여 극화의 결정 요인들을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이나 자존심 고양 욕구에서 찾는데 대해서 반대한다(Wetherell, 1987). 또한 자기범주화이론은 두 이론들에서 집단이 개인이 지니는 자기개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집단을 개인과 심리적으로 단절시켜 놓고 있다(Turner & Oakes, 1997)고 비판한다. 실제로 설득주의론과 사회비교이론은 집단 과정을 개인 과정의 연장선에서 설명하는 환원주의 관점에서 진술되었으며, 두 이론에 기초한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에서 실제로는 집단 정체감을 조작한 셈이지만 이 요인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둘째,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집단극화를 내집단 규

범에 대한 동조 현상으로 해석하여 정보출처가 되는 집단의 효과를 중요시한다. 일단 내집단에 동일시하게 되면 외집단 구성원들은 정보나 사회적 압력의 출처로서 중요성이 떨어진다. 또한 내집단에 동일시한 상황에서는 정보적 영향이거나 규범적 영향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두 기능이 모두 나타나는 준거정보적 영향이 작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보 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득 주장이든지 비교 정보 이든지 관계없이 출처가 내집단일 경우에만 유의하게 극화된다고 예언한다. 반면에 설득주의론과 사회비교이론에서는 정보출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 유형에 따른 인지적 또는 동기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성한기(1998)는 세 이론의 상대적 타당성과 내집단 출처의 집단극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 이론에서 제시한 집단극화의 결정요인, 즉 타인들의 설득적 주장, 반응 척도에서 타인들의 위치 그리고 내집단의 정보 각각의 효과를 집단 상호작용 전후의 개인적 태도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설득주의론과 비교 정보는 각각 집단극화를 유발하였으나, 정보출처가 내집단인 조건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여서 정보출처 요인에 관해서는 자기범주화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셋째, 반응유형, 즉 공격반응과 사적반응의 극화에 관해서 세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예언이 각각 다르다. 사회비교이론은 집단극화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순증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공격반응의 경우에 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된다. 반면에 설득주의론은 정보적 영향에 의한 수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격 반응보다는 오히려 타인에게 공포되지 않는 사적반응에서 극화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다고 예언한다(Kaplan, 1987; Kaplan & Miller, 1983). 한편, 두 영향을 모두 포괄하는 준거정보적 영향을 강조하는 자기범주화이론은 내집단에 동일시하는 조건에서는 공격 및 사적반응 유형에서 모두 극화가 유발된다고 예언한다(Abrams & Hogg, 1990). 또한 개인들은 내집단에 동일시함으

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를 획득하고자 하며(Turner, 1982), 주관적 불확실성을 감소하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옳음을 확인하려고 하는데(Hogg, 1996), 이 가운데 정적 사회적 정체 욕구는 공적반응에 그리고 불확실성 감소 욕구는 사적반응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자기범주화이론에 대한 간접적 지지 증거로서 한덕웅(1994a)과 최훈석과 한덕웅(1994)은 내집단 정체화된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을 다룬 일종의 동조 실험에서 사적 및 공적반응을 모두 측정하여 두 유형에서 공히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을 보고했다. 그러나 집단극화 현상을 다루는 실증 연구들에서는 현재까지 반응유형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실증 연구에서 공사반응의 구분이 애매한 형태의 반응을 측정한 경우가 많고, 반응유형에 따른 차이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집단극화 연구에서 다룬 공사반응을 세밀하게 구분해 보면 그 가운데 어느 한가지 유형만을 다룬 연구들에서 두 유형의 반응에서 각각 유의한 극화 효과들이 얻어졌다.

이상에서 제시한 차이점 외에도 사회비교이론은 타인의 입장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극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기범주화이론은 외부 사회적 가치와는 관계 없이 내집단 규범의 방향으로 극화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비교이론은 집단 평균=사회적 가치를 가정하지만 자기범주화이론은 내집단 규범이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두 이론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사회비교이론은 집단극화를 진정한 태도 변화가 아닌 순종으로 보는 반면에 자기범주화이론은 순종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수용을 수반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한편, 설득주의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은 집단극화를 진정한 변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자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주장이 설득적으로 지각된다고 시사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적 가치와 무관하게 내집단 규범과 일치하는 주장이 설득적이라고 본다.

연구 문제 및 가설

앞에서 제시한 세 이론간의 전반적 차이점 가운데 개인수준과 집단수준간의 설명수준의 환원성에 관한 문제는 나머지 두 쟁점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두 쟁점을 규명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본 실험에서는 정보출처와 반응유형에 따른 극화 효과를 직접 검증하기로 한다.

자기범주화이론은 기존 두 이론이 지닌 논리적 한계와 적용 범위의 제한 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데, 위의 쟁점들에 관련되는 소수의 실증적 증거들이 대체로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범주화이론이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집단극화 분야에서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요 명제들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이 이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내집단의 규범적 영향을 받으며 공적 및 사적반응에서 모두 극화된다고 예언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 이론에서는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정보출처는 사적반응과 공적반응의 구별없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 주어진 과제나 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이론의 예언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집단 출처에서 제공된 정보더라도 극화를 유발할 수 없는 제한 조건들이 있고, 반응유형에 따라서는 극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내집단보다 외집단에서 제공된 정보가 영향력을 발휘하여 극화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Hogg와 Abrams(1988)는 매스컴의 영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득력있는 외집단이 극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덕웅(1994a)은 과제에 대한 반응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과제와는 달리 불확실과제에서는 반응유형에 따라서 내집단의 영향력이 달라짐을 보고한 바 있다. 성한기(1996)는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만 내집단 규범의 영향이 작용함을 보고했다. Wilder(1990)는 내집단 정보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집단 구성원들은 서로 이질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정보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서 영향력이 크지만, 반면에 외집단 구성원들은 동일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각자의 정보가 상호존적으로 판단되어 영향력이 미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를 두고 그는 외집단 구성원들의 정보들을 독립적으로 지각하도록 조작한 결과 내집단과 외집단이 영향력에서 차이가 없어짐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집단의 과제 수행 상황에서 내/외집단의 능력이 반응유형과 정보 출처에 따른 극화 효과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정보출처의 효과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내집단 구성원들의 전반적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내집단의 전형적 구성원이라고 보고 동일시하기 어려우므로 동조 압력은 크지 않다고 추론하였다. 왜냐하면 내집단의 능력이 낮은 경우에 개인은 내집단에 동일시하더라도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보다는 개인적 정체가 더 특출하게 되어서 내집단의 영향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외집단이라 하더라도 전반적 능력이 내집단 구성원들보다 뛰어난 사람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특히 과제수행 상황에서 성공적 수행의 지표로 작용하게 되므로 개인이 느끼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외집단의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집단 내 범주화 효과는 극소화되고 개인 범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특히 집단규범에 동조하여 인상관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나는 사적반응에서 유능한 외집단은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집단극화 분야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집단동일시로 인한 다른 효과인 내집단편애(ingroup favoritism)에 관한 논의 및 실증적 연구 결과로부터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집단간 비교 과정에서 내집단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외집단을 차별하는 편파가 일어남이 일관성있게 확인되었으나(Brewer & Kramer, 1985; Messick & Mackie, 1989), 근래에 와서 내집단편애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외집단편애도 나타나며, 내집단 동일시 수준과 집단간 차별간에 전반적으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Hinkle & Brown, 1990; Mullen, Brown & Smith, 1992). Wetherell(1996)도 집단에 동일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집단편애와 외집단 차별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을 통해서 제안된 예측보다는 더 다양한 심리적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내/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상황에서 내집단편애가 나타나지 않는 조건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요인이 집단의 상대적 지위이다. Lalonde(1992)의 연구에서는 수행이 저조한 집단인 경우 외집단 수행의 우수성을 인정하였고, Ellemers, Rijswijk, Roefs 및 Simons(1997)는 집단간 지위 차이가 안정적이고 합법적일 경우에 낮은 지위의 집단은 현실을 인정하여 외집단편애를 나타냄을 발견했다.

이 논의를 사회적 영향 과정으로 확장해 볼 수 있다. 개인이 내집단에 동일시하여 내집단 및 그 구성원들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높은 자존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외집단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으로 지각하게 되므로 그들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미미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외집단이지만 내집단에 비해서 지위가 높거나 구성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외집단의 지위나 능력을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지각한다면 외집단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 관계인 두 운동 집단이 있을 때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낮으면 개인으로 정체화함으로써 두 집단 구성원들은 공히 집단 소속과 무관하게 가장 실력이 우수한 선수를 보고 배우려고 한다.

다만 집단간 상황에서 내/외집단의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공적 및 사적반응 유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지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사적반응에서는 내집단 규범의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자기과시나 체면유지 욕구에 덜 개입되어서 규범적 영향보다 설득주장이론으로부터 시사되는 정보적 영향을 크게 받

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자기범주화이론에 따른다고 해도 태도나 의견의 경우에는 내집단의 그것만이 정보적 가치를 지니게 되겠지만, 객관적인 능력의 경우에는 수행에서 객관적 타당성의 요구때문에 특히 사적으로 반응할 때, 집단 소속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타당화될 수 있는 과제와 수행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반응은 타인의 소속 범주보다 타인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즉,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들의 능력이 낮을 때에 비해서 높으면 사적반응이 극화되며, 사회적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한다고 추론된다. 이를 가설 1로 설정했다.

반면, 자신의 반응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공적반응에서는 집단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불인정의 위험때문에, 진실을 반영하는 정보보다 규범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이 타당하게 지각되지 않더라도 인상관리를 위해서 동의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유능하더라도 외집단 구성원들로부터는 동조 압력을 크게 느끼지 않게 된다. 즉, 공적반응의 경우 집단 구성원의 수행 능력보다 소속 범주가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반응을 극화시킨다고 예상된다. 이를 가설 2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극화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공, 사 반응 모두 극화될 수 있으나, 사적반응에서는 집단 능력에 따른 차이, 그리고 공적반응에서는 정보출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극화량에 있어서는 공적반응과 사적반응간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소수 영향을 주장하는 두 과정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 사 반응간의 차이를 다룬 Moscovici(1980)와 Mugny(1982)의 연구에서 다수로부터는 사회적 인정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사적반응보다 공적반응에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며, 반면에 소수로부터는 타당화 과정이 크게 작용하므로 공적반응보다 사적반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서 한덕웅(1990; 정지숙과 한덕웅, 1992)은 전체적으로

다수의 영향이 소수보다 더 크고, 특히 공적반응에서 다수의 영향이 소수보다 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내집단 정체화된 소수의 경우에는 공적반응보다 사적반응에서 내집단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 영향을 다루므로 위에서 제시한 주장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반응에서 사적반응보다 극화량이 더 크다는 가설 3을 설정했다. 그리고 사적반응에 비해서 공적반응에서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에 따라서 극화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예언되었으므로, 공적반응과 사적반응간의 극화량의 차이는 정보출처가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더 크다는 하위 가설도 함께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근거에 따라서 집단 구성원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극화량이 달라진다는 가설과 함께 내집단 및 외집단의 능력이 높을 때는 낮을 때보다 극화량이 더 크다는 가설 4와 5를 각각 설정했다.

내/외집단의 범주, 상대적 능력 및 반응유형에 따른 극화 효과에 관해서 세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예언들과 본 연구의 가설들을 비교하여 제시한 표가 <표 1>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적반응의 경우, 내집단의 능력이 높을 때 (1)집단극화가 나타날 것이며, (2)내집단 능력이 낮을 때보다 구성원의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출처가 외집단이더라도 외집단의 능력이 높을 때는 (3)극화가 나타나며, (4)외집단 능력이 낮을 때보다 구성원의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2. 공적반응의 경우, 정보출처가 내집단일 때 (1)극화가 나타날 것이며, (2)정보출처가 외집단일 때보다 출처의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3. (1)공적반응의 극화량이 사적반응의 극화량보다 더 클 것이다. (2)그리고 공, 사 반응간의 극화량의 차이는 정보출처가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더 클 것이다.

가설 4. 내집단 능력이 높을 때는 낮을 때보다 극화량이 더 클 것이다.

가설 5. 외집단 능력이 높을 때는 낮을 때보다 극화량이 더 클 것이다.

표 1. 내/외집단의 능력과 반응유형에 따른 극화에 관한 관점별 예언 비교

| 반응유형 | 이론 | 내집단 능력 | | 외집단 능력 | |
|------|---------------|--------|---|--------|---|
| | | 상 | 하 | 상 | 하 |
| 사적 | 사회비교 | | | ○ | |
| | 설득주장 | ○ | | | ○ |
| | 자기범주화 본 실험 | ○ | ○ | | |
| 공적 | 사회비교 | ○ | ○ | ○ | ○ |
| | 설득주장 | △ | | △ | |
| | 자기범주화 | ○ | ○ | | |
| | 본 실험 | ○ | ○ | | |
| 전체 | 사회비교 | △ | △ | △ | △ |
| | 설득주장 | ○ | | ○ | |
| | 자기범주화 | □ | □ | | |
| | 본 실험 | ○ | △ | △ | |

* 기호는 각 이론에서 제안하는 내외집단 영향력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표에서 영향력의 크기는 □>○>△의 순서로 표기되었다.

방법

실험절차

독립변인 조작을 위한 사전 조사로서 실험 개시 일주일 전에 피험자들에게 '지각속도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6매로 된 지필형 지각속도검사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지시와 과제수행 등 전 과정이 컴퓨터로 진행되었다. 실험 당일 피험자들에게는 사전 검사에 이은 연속 연구로서, 약 10일 후 집단 토의와 연습을 포함하여 연구가 3단계 과정으로 사전 검사에 이은

연속 연구로서, 약 10일 후 집단 토의와 연습을 포함하여 연구가 3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지시하였다(실제로는 행해지지 않았음). 그리고 지각 유형과 능력을 측정된 사전 검사 결과라고 알려주고 지각 유형과 능력 등급을 조작하였다. 그 다음 컴퓨터형 지각속도검사(3종의 신호탐지과제)를 실시하면서 독립변인들을 조작하고 피험자들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인의 조작 전과 후에 각각 사전 및 사후 반응을 측정하였는데, 사적반응과 공적반응의 순서로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었다. 마지막으로 질문지를 통해서 부가적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조작효과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실험에서는 3대의 컴퓨터를 준비하여 한 회기에 1~3명씩 실시되었으며,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였다.

실험과제

본 검사에서는 컴퓨터의 배경 화면에서 실험자가 지시하는 목표 자극의 갯수를 추정하는 신호탐지과제를 제작하여 이용하였다⁴⁾. 연습과제 1회, 사적반응 2회 및 공적반응 2회씩 3종의 화면에 피험자들이 총 5회 반응하도록 하였다. 연습 과제는 150여개의 O와 X문자 가운데 O문자를 찾아서 갯수를 대답하도록 했다. 반응유형별로 과제를 달리 했는데, 이는 반복 반응에 따른 과제의 학습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사적반응 과제는 E문자들 가운데서 F문자(이하 E-F 과제)를, 그리고 공적반응 과제는 U문자들 가운데서 V문자(이하 U-V과제)를 가려내도록 했다. 연습 과제는 화면이 2초간 제시되었는데, 정답은 15개였다. 두 가지 실험 과제는 각각 3초간 제시되고 배경 문자는 약 150개 그리고 정답은 7개로 하여 연습 과제보다 난이도를 더 높였다. 실험 용 두 과제의 난이도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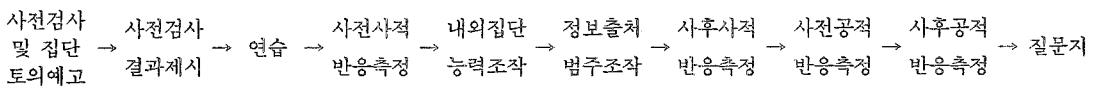


그림 1. 실험절차

4) 실험에 사용된 과제는 한덕웅(1994a) 및 최훈석과 한덕웅(1994)의 과제를 다소 수정했다.

과제를 제작해 준 최훈석(University of Pittsburgh)에게 감사드린다.

사한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과 별도로 심리학과 4학년생 20명을 대상으로 두 과제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확인한 목표 자극의 갯수를 알아본 결과, E-F과제의 응답 평균은 3.08(표준편차는 1.38), U-V과제의 응답 평균은 2.88(표준편차는 1.51)로서 두 평균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도록 통제되었으므로($t_{18} = .29, ns.$) 과제 효과가 혼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전검사는 내/외집단 구성을 조작하고 내집단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림, 문자 및 숫자판 각 2매씩 총 6매로 된 지각속도검사였는데, 각각 종합적성검사, 일반 서적 및 U-K 숫자계산검사에서 발췌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제작하였다.

실험설계

2(정보출처: 내집단/외집단) × 2(내집단능력: 상/하) × 2(외집단능력: 상/하) × (2)(반응시점: 사전/사후) × (2)(반응유형: 사적/공적)의 요인설계로서, 반응유형과 반응시점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고,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피험자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구효성가톨릭대 여대생으로서 사전 조사에 응한 193명 중 11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8개의 실험조건에 14명씩 무선 배당되었다.

독립변인 조작

독립변인 조작에 앞서서 연구의 개요, 집단 토의 및 사전 검사 결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모니터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지각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수렴형」은 지각 장면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며, 반면에 「확산형」은 지각 장면의 각 부분을 골고루 훑어보지만 정교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지각유형이 동일한 사람들은 성격과 행동양식 등 많은 특징들이 유사한 경향이 있

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형이 더 효율적인지는 학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지각 과제에서 두 유형의 상대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각속도능력은 일반적으로 최상의 1등급부터 최하의 7등급까지 일곱 등급으로 구분하며, 이 능력은 지능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nter키를 눌러서 학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학생은 지난번 검사 결과, 지각유형은 「확산형」, 지각능력은 「4등급」으로서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집단토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검사 결과에 따라 토의집단이 이미 구성되었습니다. 지각유형별로 우선 분류한 다음, 동일 유형내에서도 응답 패턴, 갯수, 오류율 등 반응양식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5명씩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각유형이 상반되는 사람들 5명으로 구성된 다른 집단과 서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지각능력과는 상관없이 지각유형이 정반대인 두 집단의 10명이 약 10일후 지각 능력 향상에 관한 토의와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과제 수행 방식을 설명하고 연습 시행과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정보출처의 집단범주 조작: 사전 반응을 측정한 후 피험자들에게 내집단 또는 외집단 중 어느 한 집단 구성원들의 반응 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내집단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자신의 소속 집단의 나머지 4명의 반응이라며 자료를 제시하였고, 외집단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함께 토의할 상반된 지각유형을 가진 상대집단 구성원들의 반응이라며 4명의 반응 결과를 제시하여 참조하도록 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자신 및 내집단의 지각유형은 「확산형」이고, 외집단의 지각유형은 「수렴형」이라고 알려주었다.

타인들의 반응이라고 알려진 정보들의 평균은 피험자의 사전 반응과 4 또는 5, 즉 평균 4.5의 차이가 나도록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피험자들에게 정답이 1~30개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중간점인 15.5를 기준으로 사전 반응이 16개 이상이면 타인들의 결과는 평균 4.5개 더 많게, 15개 이하이면 평균 4.5개 더 적게 제시되도록 조작했다. 그리고 개인별 사전 반응과의 차이값인 ± 4 와 ± 5 의 제시 순서는 E-

F과제와 U-V과제별로 피험자마다 차례를 달리 제시 하여 반반씩 상쇄화하였다.

내집단 능력의 조작: 내집단 구성원 전체의 지각속 도능력 평균이 7개 등급 중 2등급으로서 상당히 우수 하거나, 6등급으로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각각 알려주 었다. 그리고 모든 피험자들 자신의 등급은 4등급으 로 알려주었다.

외집단 능력의 조작: 내집단 능력 조작과 동일하게 외집단 구성원 전체의 지각속도능력의 평균이 2등급 으로서 상당히 우수하거나 또는 6등급으로 상당히 저 조하다고 알려주었다.

반응유형의 조작: 1회의 연습 시행 후 2회째 연습 시행(실제로는 사전 사적반응)을 한 후 4명의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들의 반응 결과를 익명으로 보여 주고 피험자 자신의 반응도 익명이 보장됨을 주지시 킨 다음, 사후 사적반응을 받았다. 다른 과제로 한번 더 연습한다고 알려주고 타인들에게 공개할 사전 공 적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다음 집단 토의에서 공개된 다고 알려주면서 학과, 학년 및 이름이 명시된 4명의

반응 결과를 보여주고 사후 공적반응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인 측정

타인들의 반응을 접하기 전과 후 피험자들의 응답 갯수 그리고 전후 반응의 차이값인 극화량이 주 종속 변인이었으며, 그밖에 지각된 사회적 영향력을 질문 지로 측정하였다.

결 과

독립변인 조작 확인

내집단과 외집단의 지각유형과 능력 등급에 대한 물음에 피험자 전원이 정확하게 기억하여서 내/외집 단의 능력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시되었던 4명의 자료는 어떤 사람들의 결과였습니 까?”라는 질문에 모든 피험자가 정확하게 대답하여서 정보출처 변인 역시 성공적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자신의 지각유형과 능력 등급 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표 2.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사적반응의 시점별 평균¹⁾

| | | 내 집 단 능 력 (B) | | | | | | | | |
|-------------|-------------|-----------------|-----------------|-----------------|-----------------|-----------------|-----------------|-----------------|-----------------|-----------------|
| 정보출처 (A) | 반응집단 (D) | 상 | | | 하 | | | 전체 | | |
| | | 외집단능력 (C) | | | 외집단능력 | | | 외집단능력 | | |
| |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 내집단 | 사전 | 11.00 (4.98) | 11.57 (4.11) | 11.29 (4.49) | 12.29 (4.86) | 11.93 (5.33) | 12.11 (5.01) | 11.64 (4.87) | 11.75 (4.67) | 11.70 (4.73) |
| | 사후 | 9.14 (4.47) | 9.86 (3.94) | 9.50 (4.15) | 13.00 (5.25) | 13.14 (6.16) | 13.07 (5.62) | 11.07 (5.17) | 11.50 (5.34) | 11.29 (5.21) |
| 외집단 | 사전 | 12.43 (4.48) | 12.36 (3.93) | 12.39 (4.14) | 11.36 (4.05) | 11.57 (4.83) | 11.46 (4.38) | 11.89 (4.23) | 11.96 (4.34) | 11.93 (4.25) |
| | 사후 | 11.36 (4.67) | 12.36 (3.79) | 11.86 (4.21) | 10.50 (3.57) | 11.57 (5.26) | 11.04 (4.44) | 10.93 (4.10) | 11.96 (4.52) | 11.45 (4.31) |
| 전 체 | 사전 | 11.71 (4.71) | 11.96 (3.97) | 11.84 (4.31) | 11.82 (4.41) | 11.75 (4.99) | 11.79 (4.67) | 11.77 (4.52) | 11.86 (4.47) | 11.81 (4.48) |
| | 사후 | 10.25 (4.62) | 11.11 (4.00) | 10.68 (4.31) | 11.75 (4.58) | 12.36 (5.68) | 12.05 (5.12) | 11.00 (4.62) | 11.73 (4.91) | 11.37 (4.76) |

1) 사전 반응이 15이하이면 타인들의 결과를 평균 4.5개 더 적게 제시했고 16이상이면 4.5개 더 많게 제시했기 때문에 사후 반응은 사전 반응치에 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극화되어 효과가 상쇄된다. 극화 방향을 일치시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반응이 16이상인 피험자의 사후 반응을 사전 반응과의 차이값만큼 사전 반응에서 뺀 값, 즉 사전 반응-(사후 반응-사전 반응)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사전 반응보다 사후 반응이 더 낮으면 반응이 극화된 것이다(표 4에서도 동일함).

사적반응의 극화

사적반응의 사전 및 사후 측정치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고,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사적반응의 시점별 측정치의 변량분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정보출처(A) | 2.16 | 1 | 2.16 | .05 |
| 내집단능력(B) | 24.44 | 1 | 24.44 | .58 |
| 외집단능력(C) | 9.44 | 1 | 9.44 | .23 |
| A×B | 132.07 | 1 | 132.07 | 3.16 |
| A×C | 1.14 | 1 | 1.14 | .03 |
| B×C | 1.14 | 1 | 1.14 | .03 |
| A×B×C | 3.01 | 1 | 3.01 | .07 |
| S(A×B×C) | 4352.78 | 104 | 41.85 | |
| 반응시점(D) | 11.16 | 1 | 11.16 | 7.63** |
| A×D | .07 | 1 | .07 | .05 |
| B×D | 28.57 | 1 | 28.57 | 19.52*** |
| C×D | 5.78 | 1 | 5.78 | 3.95* |
| A×B×D | 24.44 | 1 | 24.44 | 16.70*** |
| A×C×D | 1.44 | 1 | 1.44 | .99 |
| B×C×D | .01 | 1 | .01 | .01 |
| A×B×C×D | .28 | 1 | .28 | .20 |
| D×S(A×B×C) | 152.21 | 104 | 1.46 | |

* $p < .05$, ** $p < .01$, *** $p < .001$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함).

내집단 능력의 효과: 정보출처(A)×내집단능력(B)×외집단능력(C)×반응시점(D)의 4원 변량분석 결과, 내집단능력(B)과 반응시점(D)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F_{1,104} = 19.52, p < .001$), 단순 주효과는 유능한 내집단 조건에서 극화되었으며(D at $B_1 : F_{1,104} = 25.83, p < .001$), 무능한 내집단 조건에서는 극화되지 않았다(D at $B_2 : F_{1,104} = 1.72, ns$). 이 결과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것이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리고 정보출처, 내집단능력 및 반응시점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_{1,104} = 16.70, p < .001$). 단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집단능력(B)과 반응시점(D)의 상호작용은 정보출처가 내집단일 경우에만 유의하였고(B×D at $A_1 : F_{1,104} = 36.25, p < .001$), 외집단

일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B×D at $A_2 : F_{1,104} = .05, ns$). 즉, 이 결과는 유능한 내집단의 극화 효과는 내집단의 구체적 정보를 접할 때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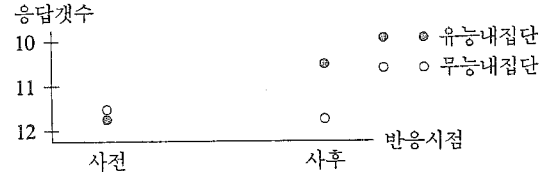


그림 2. 사적반응에서 내집단능력과 반응시점의 상호작용

외집단능력의 효과: 외집단능력과 반응시점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F_{1,104} = 3.95, p < .05$), 단순주효과는 유능한 외집단 조건에서 극화되었고(D at $C_1 : F_{1,104} = 11.30, p < .01$), 무능한 외집단 조건에서는 극화되지 않았다(D at $C_2 : F_{1,104} = .29, ns$). 따라서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내/외집단능력의 극화 효과를 종합하자면, 내집단이라도 무능하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외집단이라도 유능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반응시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F_{1,104} = 7.63, p < .01$), 이는 사적반응의 사전 측정치 평균보다 사후 측정치 평균이 더 커서 전반적으로 집단극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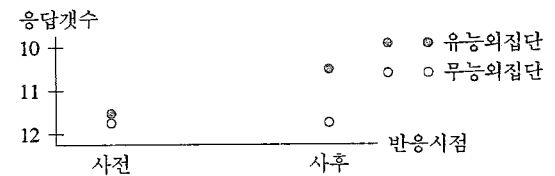


그림 3. 사적반응에서 외집단능력과 반응시점의 상호작용

공적반응의 극화

공적반응의 사전 및 사후 측정치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공적반응의 시점별 평균

| 정보출처 (A) | 반응집단 (D) | 내 집 단 능 력 (B) | | | | | | | | |
|-------------|-------------|-----------------|-----------------|-----------------|-----------------|-----------------|-----------------|-----------------|-----------------|-----------------|
| | | 상 | | | 하 | | | 전체 | | |
| | | 외집단능력 (C) | | | 외집단능력 | | | 외집단능력 | | |
| |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 내집단 | 사전 | 11.21 (3.87) | 11.21 (3.29) | 11.21 (3.52) | 10.57 (3.76) | 11.57 (4.78) | 11.07 (4.25) | 10.89 (3.75) | 11.39 (4.03) | 11.14 (3.87) |
| | 사후 | 9.21 (3.62) | 9.14 (3.72) | 9.18 (3.60) | 10.07 (3.73) | 10.79 (4.15) | 10.43 (3.89) | 9.64 (3.63) | 9.96 (3.96) | 9.80 (3.77) |
| 외집단 | 사전 | 10.57 (3.32) | 9.43 (3.52) | 10.00 (3.41) | 10.57 (4.26) | 10.86 (4.07) | 10.71 (4.09) | 10.57 (3.75) | 10.14 (3.81) | 10.36 (3.75) |
| | 사후 | 9.57 (3.63) | 9.14 (3.48) | 9.36 (3.50) | 9.36 (3.99) | 11.00 (4.21) | 10.18 (4.11) | 9.46 (3.75) | 10.07 (3.91) | 9.77 (3.80) |
| 전 체 | 사전 | 10.89 (3.55) | 10.32 (3.97) | 10.61 (3.49) | 10.57 (3.94) | 11.21 (4.37) | 10.89 (4.14) | 10.73 (3.72) | 10.77 (3.94) | 10.75 (3.81) |
| | 사후 | 9.39 (3.56) | 9.14 (3.54) | 9.27 (3.52) | 9.71 (3.81) | 10.89 (4.10) | 10.30 (3.97) | 9.55 (3.66) | 10.02 (3.90) | 9.70 (3.77) |

표 5.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공적반응의 시점별 측정치의 변량분석

| 변 량 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정보출처(A) | 9.44 | 1 | 9.44 | .33 |
| 내집단능력(B) | 24.44 | 1 | 24.44 | .85 |
| 외집단능력(C) | 3.50 | 1 | 3.50 | .12 |
| A×B | .64 | 1 | .64 | .02 |
| A×C | 1.44 | 1 | 1.44 | .05 |
| B×C | 24.44 | 1 | 24.44 | .85 |
| A×B×C | 2.57 | 1 | 2.57 | .09 |
| S(A×B×C) | 2989.42 | 104 | 28.74 | |
| 반응시점(D) | 52.07 | 1 | 52.07 | 52.14*** |
| A×D | 7.87 | 1 | 7.87 | 7.89** |
| B×D | 7.87 | 1 | 7.87 | 7.89** |
| C×D | 2.57 | 1 | 2.57 | 2.57 |
| A×B×D | 5.78 | 1 | 5.78 | 5.79* |
| A×C×D | 5.16 | 1 | 5.16 | 5.17* |
| B×C×D | .16 | 1 | .16 | .16 |
| A×B×C×D | .64 | 1 | .64 | .64 |
| D×S(A×B×C) | 103.85 | 104 | .99 | |

정보출처의 효과: 정보출처(A)×내집단능력(B)×외집단능력(C)×반응시점(D)의 4원 변량분석 결과, 정보출처와 반응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_{1,104} = 7.89, p < .01$), 정보출처별 반응시점간의 차이에 관한 단순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D at A₁ :

$F_{1,104} = 50.72, p < .001, D$ at A₂ : $F_{1,104} = 9.81, p < .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따라서 내집단 정보가 공적반응을 극화시키리라는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한편, 외집단 정보 역시 공적반응의 극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는 유능한 외집단 조건에서 반응시점간 반응 차이가 크게 나온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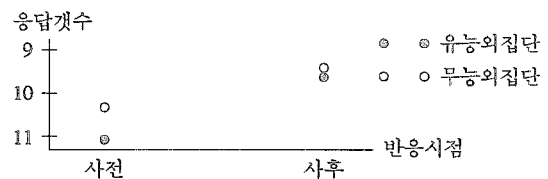


그림 4. 공적반응에서 정보출처와 반응시점의 상호작용

한편, 정보출처와 반응시점 변인은 내집단능력($F_{1,104} = 5.79, p < .05$) 및 외집단능력($F_{1,104} = 5.17, p < .05$)과 각각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보니 정보출처와 반응시점의 상호작용은 유능한 내집단 조건과(A×D at B₁ : $F_{1,104} = 13.71, p < .01$), 무능한 외집단 조건에서 각각 유의하였다(A×D at C₂ : $F_{1,104} = 13.02, p < .01$). 그리고 단순-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유능한 내집단 조건에서는

정보출처가 내집단(D at A₁ at B₁ : F_{1,104} = 58.59, p<.001)일 때와 외집단(D at A₂ at B₁ : F_{1,104} = 5.83, p<.05)일 때 모두 유의하게 극화되었고, 무능한 외집단 조건에서는 정보출처가 내집단일 경우에만 극화되었다(D at A₁ at C₂ : F_{1,104} = 28.85, p<.001).

기타 효과: 반응시점의 주효과가 유의하여서(F_{1,104} = 52.14, p<.01) 공격반응 역시 사전 반응에 비해서 사후 반응이 더 극화되었다. 그리고 내집단능력과 반응시점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는데(F_{1,104} = 7.89, p<.01), 단순주효과를 살펴보면 유능한 내집단과 무능한 내집단 모두 반응을 유의하게 극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D at B₁ : F_{1,104} = 50.72, p<.001, D at B₂ : F_{1,104} = 9.81, p<.01).

극화량

극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조건별 반응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6>과 <표 7>이다.

표 7. 정보출처의 집단범주 및 능력과 반응유형에 따른 극화량의 변량분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정보출처(A) | 7.14 | 1 | 7.14 | 3.28 |
| 내집단능력(B) | 68.64 | 1 | 68.64 | 31.49*** |
| 외집단능력(C) | 17.16 | 1 | 17.16 | 7.87** |
| A×B | 52.07 | 1 | 52.07 | 23.89*** |
| A×C | 13.01 | 1 | 13.01 | 5.97* |
| B×C | .44 | 1 | .44 | .20 |
| A×B×C | .16 | 1 | .16 | .07 |
| S(A×B×C) | 226.71 | 104 | 2.17 | |
| 반응유형(D) | 16.07 | 1 | 16.07 | 5.86* |
| A×D | 8.64 | 1 | 8.64 | 3.15 |
| B×D | 7.14 | 1 | 7.14 | 2.61 |
| C×D | .87 | 1 | .87 | .32 |
| A×B×D | 5.78 | 1 | 5.78 | 2.11 |
| A×C×D | .87 | 1 | .87 | .32 |
| B×C×D | .01 | 1 | .01 | .01 |
| A×B×C×D | 1.44 | 1 | 1.44 | .53 |
| D×S(A×B×C) | 285.14 | 104 | 2.74 | |

표 6. 정보출처의 집단범주 및 능력과 반응유형에 따른 극화량의 평균

| 정보출처 (A) | 반응집단 (D) | 내 집 단 능 력 (B) | | | | | | | | |
|-------------|-------------|----------------|----------------|----------------|-----------------|-----------------|-----------------|----------------|----------------|----------------|
| | | 상 | | | 하 | | | 전체 | | |
| | | 외집단능력 (C) | | | 외집단능력 | | | 외집단능력 | | |
| |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 내집단 | 사전 | 1.86 (1.61) | 1.71 (1.59) | 1.79 (1.57) | -0.71 (1.90) | -1.21 (2.01) | -0.96 (1.93) | .57 (2.17) | .25 (2.32) | .41 (2.23) |
| | 사후 | 2.00 (1.36) | 2.07 (1.86) | 2.04 (1.60) | .50 (1.29) | .79 (1.42) | .64 (1.34) | 1.25 (1.51) | 1.43 (1.75) | 1.34 (1.62) |
| | 전체 | 1.93 (1.46) | 1.89 (1.71) | 1.91 (1.58) | -.11 (1.71) | -.21 (1.99) | -.16 (1.84) | .91 (1.88) | .84 (2.12) | .88 (2.00) |
| | 외집단 | 1.07 (1.44) | .00 (1.84) | .54 (1.71) | .86 (1.51) | -.14 (1.70) | .36 (1.66) | .96 (1.45) | -.07 (1.74) | .45 (1.67) |
| 외집단 | 사전 | 1.00 (1.71) | .29 (1.38) | .64 (1.57) | 1.21 (1.05) | -.14 (1.03) | .54 (1.23) | 1.11 (1.40) | .07 (1.21) | .59 (1.40) |
| | 사후 | 1.04 (1.55) | .14 (1.60) | .59 (1.63) | 1.04 (1.29) | -.14 (1.38) | .45 (1.45) | 1.04 (1.41) | .00 (1.49) | .52 (1.54) |
| | 전체 | 1.07 (1.55) | .17 (1.60) | .61 (1.63) | 1.13 (1.29) | -.14 (1.38) | .40 (1.45) | 1.05 (1.41) | .04 (1.49) | .54 (1.54) |
| | 전체 | 1.46 (1.55) | .86 (1.90) | 1.16 (1.75) | .07 (1.86) | .68 (1.91) | -.30 (1.91) | .77 (1.84) | .09 (2.04) | .43 (1.96) |
| 전체 | 사전 | 1.50 (1.60) | 1.18 (1.85) | 1.34 (1.72) | .86 (1.21) | .32 (1.31) | .59 (1.28) | 1.18 (1.44) | .75 (1.64) | .96 (1.55) |
| | 사후 | 1.48 (1.56) | 1.02 (1.86) | 1.25 (1.73) | .46 (1.61) | -.18 (1.70) | .14 (1.68) | .97 (1.66) | .42 (1.87) | .70 (1.79) |
| | 전체 | 1.49 (1.56) | 1.10 (1.86) | 1.29 (1.73) | .66 (1.61) | .07 (1.70) | -.08 (1.68) | .87 (1.66) | .08 (1.87) | .83 (1.79) |
| | 전체 | 1.49 (1.56) | 1.10 (1.86) | 1.29 (1.73) | .66 (1.61) | .07 (1.70) | -.08 (1.68) | .87 (1.66) | .08 (1.87) | .83 (1.79) |

* '-'는 피험자의 반응이 타인의 반응 평균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반응유형의 효과: 정보출처(A)×내집단능력(B)×외집단능력(C)×반응유형(D)의 4원 변량분석 결과, 반응유형의 주효과, 즉 공격반응의 극화량이 사적반응의 극화량보다 더 커서($F_{1,104} = 5.86, p < .05$)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반응유형과 정보출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F_{1,104} = 3.15, p < .08$) 공사 반응간의 극화량 차이는 정보출처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내집단능력의 효과: 내집단능력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내집단의 능력이 낮을 때에 비해서 높을 때 극화량이 유의하게 더 커서($F_{1,104} = 31.49, p < .001$) 가설 4가 지지되었다. 그리고 내집단능력의 효과는 정보출처에 따라 달랐는데($F_{1,104} = 23.89, p < .001$), 이의 단순주효과를 살펴보니 정보출처가 내집단일 경우에만 유능한 내집단의 극화량이 무능한 내집단의 극화량보다 더 컸다($B \text{ at } A_1 : F_{1,104} = 55.36, p < .001, B \text{ at } A_2 : F_{1,104} = .26, ns.$). 즉, 외집단의 정보를 접해서 내집단 정보를 알지 못할 때는 내집단능력에 따른 극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집단능력의 효과: 외집단능력의 주효과 역시 유의하여, 유능한 외집단의 극화량이 무능한 외집단의 극화량보다 더 컸다($F_{1,104} = 7.87, p < .01$). 이 결과는 가설 5를 지지한다. 그리고 외집단능력과 정보출처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는데($F_{1,104} = 5.97, p < .05$),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외집단의 정보를 접할

경우에만 유능한 외집단의 극화량이 무능한 외집단의 극화량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 \text{ at } A_1 : F_{1,104} = .20, ns., C \text{ at } A_2 : F_{1,104} = 13.83, p < .01$).

지각된 영향력

사적반응에의 영향력: “신분과 응답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적으로 내 의견을 반영했다”~“전적으로 4명의 의견에 따랐다”의 7점 척도에 반응하게 한 결과는 <표 8>과 <표 9>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정보출처(A)×내집단능력(B)×외집단능력(C)의 3원 변량분석 결과, 정보출처의 주효과가 유의해서($F_{1,104} = 7.13, p < .01$), 외집단 정보보다 내집단 정보를 접할 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내

표 9.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사적반응에서의 지각된 영향력의 변량분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정보출처(A) | 6.03 | 1 | 6.03 | 7.13** |
| 내집단능력(B) | 9.14 | 1 | 9.14 | 10.81** |
| 외집단능력(C) | 1.75 | 1 | 1.75 | 2.07 |
| A×B | 3.57 | 1 | 3.57 | 4.22* |
| A×C | 6.03 | 1 | 6.03 | 7.13** |
| B×C | .00 | 1 | .00 | .00 |
| A×B×C | .57 | 1 | .57 | .68 |
| S(A×B×C) | 88.00 | 104 | .84 | |

표 8.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사적반응에서의 지각된 영향력의 평균

| 정보출처 (A) | 반응집단 (D) | 내 집 단 능 력 (B) | | | | | | | | |
|-------------|-------------|---------------|--------|--------|--------|-------|--------|--------|--------|--------|
| | | 상 | | | 하 | | | 전체 | | |
| | | 외집단능력 (C) | | | 외집단능력 | | | 외집단능력 | | |
| |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 내집단 | 사전 | 2.43 | 2.79 | 2.61 | 1.64 | 1.71 | 1.68 | 2.04 | 2.25 | 2.14 |
| | | (1.02) | (1.12) | (1.07) | (.63) | (.73) | (.67) | (.92) | (1.08) | (1.00) |
| | 사후 | 2.21 | 1.36 | 1.79 | 1.86 | 1.29 | 1.57 | 2.04 | 1.32 | 1.68 |
| | | (1.05) | (.74) | (.99) | (1.23) | (.61) | (1.00) | (1.14) | (.67) | (.99) |
| | 전체 | 2.32 | 2.07 | 2.20 | 1.75 | 1.50 | 1.62 | 2.04 | 1.79 | 1.91 |
| | | (1.02) | (1.18) | (1.10) | (.97) | (.69) | (.84) | (1.03) | (1.00) | (1.02) |

* 점수가 클수록 타인의 영향력을 크게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집단능력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무능한 내집단보다 유능한 내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지각하였는데($F_{1,104} = 10.81, p < .01$), 이 결과는 가설 1-(2)를 지지한다. 또한 내집단능력과 정보출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서($F_{1,104} = 4.22, p < .05$) 단순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내집단 정보를 접할 경우만 내집단능력에 따른 지각된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하였다(B at $A_1 : F_{1,104} = 14.36, p < .001$, B at $A_2 : F_{1,104} = .76, ns.$).

외집단능력에 따른 영향력 지각은 차이가 없어서(외집단능력 주효과: $F_{1,104} = 2.07, ns.$) 가설 1-(4)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집단능력과 정보출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F_{1,104} = 7.13, p < .01$), 단순주효과는 외집단 정보만을 접할 경우 능력이 높은 외집단 구성원들의 정보가 능력이 낮은 외집단 구성원들의 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C at $A_1 : F_{1,104} = .76, ns.$, C at $A_2 : F_{1,104} = 8.50, p < .01$).

공적반응에의 영향력: “신분과 응답이 공개되는 경우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적 반응 영향력 측정에서와 동일한 7점 척도에 반응하게 한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정보출처(A)×내집단능력(B)×외집단능력(C)의 3원 변량분석 결과, 유일하게 정보출처의 주효과만 유의하여서($F_{1,104} = 17.19, p < .001$) 공적반응에 있어서 외집단 정보보다 내집단 정보의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과 일관된 것으로서 가설 2-(2)를 지지한다.

표 11.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공적반응에서의 지각된 영향력의 변량분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정보출처(A) | 19.72 | 1 | 19.72 | 17.19*** |
| 내집단능력(B) | 2.58 | 1 | 2.58 | 2.25 |
| 외집단능력(C) | .43 | 1 | .43 | .38 |
| A×B | .22 | 1 | .22 | .19 |
| A×C | .72 | 1 | .72 | .63 |
| B×C | .43 | 1 | .43 | .38 |
| A×B×C | .43 | 1 | .43 | .38 |
| S(A×B×C) | 119.45 | 104 | 1.14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을 배경으로 집단극화에서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의 영향이 집단구성원들이 지닌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공적 및 사적 반응유형에 따라서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중요한 가설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즉, 사적반응의 경우 내/외집단의 능력이 높을 때 극화되었으며 [가설 1-(1)과 (3)], 내집단의 능력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영향력이 더 컸다 [가설 1-(2)]. 반면 공적반응의 경우에는 정보출처가 내집단일 때 극화되었으며, 외집단일 때보다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가설 2-(1)과 (2)]. 그리고 사적반응보다 공적반응에서 극화량이 더 컸으며 [가설 3-

표 10.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와 능력에 따른 공적반응에서의 지각된 영향력의 평균

| 정보출처 (A) | 반응집단 (D) | 내 집 단 능 력 (B) | | | | | | | | |
|-------------|-------------|---------------|--------|--------|--------|--------|--------|--------|--------|--------|
| | | 상 | | | 하 | | | 전체 | | |
| | | 외집단능력 (C) | | | 외집단능력 | | | 외집단능력 | | |
| |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상 | 하 | 전체 |
| 내집단 | 사전 | 2.57 | 2.86 | 2.71 | 2.43 | 2.21 | 2.32 | 2.50 | 2.54 | 2.52 |
| | | (1.09) | (1.17) | (1.12) | (1.34) | (1.25) | (1.28) | (1.20) | (1.23) | (1.21) |
| | 사후 | 1.93 | 1.64 | 1.79 | 1.71 | 1.43 | 1.57 | 1.82 | 1.54 | 1.68 |
| | | (.83) | (1.15) | (.99) | (.91) | (.65) | (.79) | (.86) | (.92) | (.90) |
| | 전체 | 2.25 | 2.25 | 2.25 | 2.07 | 1.82 | 1.95 | 2.16 | 2.04 | 2.10 |
| | | (1.00) | (1.29) | (1.15) | (1.18) | (1.06) | (1.12) | (1.09) | (1.19) | (1.14) |

* 점수가 클수록 타인의 영향력을 크게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1)], 내/외집단의 능력이 높으면 낮을 때보다 극화량이 더 컸다(가설 4와 5). 그러나 사적반응에서 외집단 능력에 따른 영향력 지각에 관한 가설 1-(4)와 반응 유형과 정보출처가 상호작용하여 극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 및 사적반응에서 모두 유의한 극화 효과가 관찰된 점은 자기범주화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비교이론이나 설득주장이론과는 달리 자기범주화이론에서 차별적으로 예언하는 내집단 정보만의 극화 효과는 공격반응의 경우에는 지지된 반면, 사적반응에서는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에 따른 차이없이 모두 극화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지되는데 그쳤다.

본 실험의 결과로부터 집단의 능력이 자기범주화이론에서 강조하는 정보출처의 극화 효과를 제한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적반응에서 내집단이든 외집단이든 관계없이 유능한 집단의 정보는 극화를 유발했으며, 무능한 내집단의 정보는 극화를 유발하지 못하여 설득주장이론과 조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공격반응에 있어서는 유능하거나 무능한 내집단 정보는 모두 극화를 일으켰으나, 외집단이 유능한 경우에도 극화되었다. 한편, 능력과 관련없는 태도를 다룬 성한기(1998)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정보만이 사적반응을 유의하게 극화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내집단에 동일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외집단의 능력에 따라서 극화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먼저,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집단에 동일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보하려고 한다(Turner, 1982). 그러나 내집단의 능력이나 지위가 낮은 경우 내집단에 동조하면 오히려 자기존중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특히 내집단 동일시 정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 내집단 정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즉, 내집단이 긍정적 자기상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 정보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외집단의 능력이 내집단보다 더 높은 경우,

특히 내집단의 능력은 낮고 외집단의 능력은 높아서 두 집단간 능력의 차이가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다면, 내집단구성원들은 외집단의 능력을 인정하고 외집단 정보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약화될 수도 있으며, Hinkle과 Brown(1990)의 지적대로 단순히 인상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외집단에 동조하거나,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더 나은 새 비교 차원을 찾거나 만들어 내어서 비교함으로써 높은 내집단 동일시 수준과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 설명은 집단의 목표나 수행 과제에의 성질과 관련된다. Rugs와 Kaplan(1993)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과제지향적 목표조건에서는 정보적 영향이 우세하고, 구성원들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지향적 목표조건에서는 규범적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 결과를 해석하면서 규범적 영향은 집단 의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정보적 영향은 집단 의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실험에서 다른 상황은 집단의 조화보다 판단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제지향적 목표조건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외집단 의식에 관계없이 정확한 정보임을 함축하는 유능한 외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두 설명의 상대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새로운 검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능력과 관련된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기범주화이론이 강조하는 정보출처의 집단범주 효과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내집단편애를 보이지 않는 예외 조건들은 많이 규명되어 있는 반면, 내집단 영향의 제한 조건이나 외집단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반응유형에 따라서 극화의 크기가 달라지는 점을 밝힌 부분도 본 연구의 중요한 공헌으로 볼 수 있다. 사적반응에서는 집단의 능력에 따라서 극화 효과가 달라진 반면, 공격반응에서는 정보출처가 된 집단범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았다. 각 실험 조건의 극화량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반응유형별

로 차별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공격반응의 경우는 정보출처가 내집단이며 능력이 높을 때 극화량(2.04)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출처가 외집단이며 능력이 높을 때(1.11), 출처가 내집단이며 능력이 낮을 때(.64), 그리고 끝으로 출처가 외집단이며 능력이 낮을 때(.07)의 순서로 극화량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 결과는 공격반응의 극화에서 정보출처의 집단범주 뿐만 아니라 정보출처의 능력 요인도 가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적반응의 경우에는 정보출처의 집단범주에 상관없이 능력이 높은 조건들에서 얻은 극화량(내집단: 1.79, 외집단: .96)이 능력이 낮은 조건들에서 얻은 극화량(내집단: -.96, 외집단: -.07)보다 더 컸다. 이는 집단범주와 능력의 가산 효과라기보다 능력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응유형에 따라서 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집단의 영향 과정이 정보적 영향과 규범적 영향의 이중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서 자기범주화이론에서 강조하는 준거정보적 영향의 단일 영향 과정 설명과 상치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실험 후 질문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험 후 질문지는 정보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의 지각된 설득력, 지각된 정확성 및 준거 자료로서의 활용 정도에 관한 3문항과, 규범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원의 매력, 동조 압력 및 조화 압력에 관한 3문항을 더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보적 영향과 규범적 영향을 측정한 6문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극화에 기여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6문항 각각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답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극화량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공격반응의 극화량을 예언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한 요소들은 지각된 정확성($R^2 = .186, p < .001$)과 정보원의 매력($R^2 = .034, p < .05$)이었다. 반면, 사적반응의 극화량을 중다예언하는데 기여한 요소들로는 지각된 설득력($R^2 = .107, p < .001$)과 지각된 정확성($R^2 = .027, p < .10$)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에

서 보는데로 정보의 지각된 정확성 요인은 두 유형의 극화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공격반응에서는 정보출처의 매력과 같은 규범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사적반응에서는 정보의 지각된 설득력과 같은 정보적 요인이 중요시되었다. 비록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이 결과로부터 반응유형에 따라서 차별적 요인이 극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내집단 범주가 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설득에 의한 내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상관리 또는 다수 의견에 추종하는 피상적 변화의 두가지 경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장차 집단극화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등 체계적 연구가 따라야 하겠지만, 사적 및 공격 극화의 두 유형의 변화가 모두 나타난다면 사적반응의 극화는 내면적 변화를 의미하며, 공격반응의 극화는 피상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적반응의 극화를 지지하는 결과와 달리, 영향력 지각에 있어서는 유/무능 외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집단의 능력에 따른 영향력의 지각을 보면 정보출처와 상호작용하여 외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접하는 조건에서는 무능한 외집단보다 유능한 외집단의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이는 가설과 일관된 결과이다.

그리고 정보출처가 외집단일 때보다 내집단일 때 공, 사반응간의 극화량의 차이가 더 크다는 가설은 정보출처와 반응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참고로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반응유형에 따른 극화량의 차이가 내집단의 정보를 접할 경우에만 유의하고($F_{1,104} = 8.81, p < .01$), 외집단의 정보를 접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아서($F_{1,104} = .21, ns$) 예언과 일치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내집단의 사회적 정체화가 극화에 필수적이라는 결과(성한기, 1998; Hogg, Turner & Davidson, 1990; McGarty, Turner, Hogg, Davidson & Wetherell, 1992)와 개인적 정체화로도 극화가 가능하다는 결과(Ng & Wilson, 1989)가 혼재하는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들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장래에 연구할

중요한 과제를 남긴다. 먼저 극화를 설명하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준거정보적 영향이 지지되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본 실험의 결과들은 사회비교이론이나 설득주장이론을 포함해서 이 세 이론 중 어느 한 이론만을 확고하게 지지하기보다 각 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조건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준거정보적 영향을 주장하는 자기범주화이론에 의해서 사회비교이론이나 설득주장이론이 모두 포괄될 수 있다는 환원성에 관한 주장은 장차 추가 연구를 통해서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 환원성의 주장을 검증하려면 장차 정확성 동기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의사결정 과제를 사용할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내어서 환원성이 확립되는 조건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으로 범주화할 때 단순 범주를 사용했는데, 내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Brewer(1991)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사회적 정체를 한 집단의 범주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즉, 한 집단에 소속하더라도 집단에 동일시하는 수준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 장차 극화가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대로 집단정체화 수준을 매개로 결정되는 현상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외 집단 범주화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이 지니는 사회적 정체 수준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집단극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관한 이론들이 서구인의 특성과 서구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상이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덕웅(1994b)은 한국인은 유학의 인(仁) 사상과 유교의 영향으로 가족처럼 친밀성이 높고 유대가 강한 내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하고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가정에 근거를 두고 한덕웅(1996)은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은 집단에 동일시하는 사회적 정체화가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논리로 보면 내집단 정체화에 의해서 극화가 나타난다는 준거정보적 영향이론은 유대가 강

하고 친밀성이 높아서 내집단 동일시가 강한 집단에서 잘 지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상진(1992)은 한국인의 자기 정체감은 집단 정체감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우리' 범주에 따른 감정이나 심리적 유대감 등은 서구인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Hinkle과 Brown(1990)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 내집단편애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주장들은 특히 자기범주화이론이 동양 문화권에 적용 가능성이 더 크고 연구해야할 영역이 더 넓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장차 한국 문화권에서 자기범주화이론으로 집단극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해명하는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성한기(1987). 게임상황에서의 개인선택의 극화. 성균관대학교 수선논집, 12집, 357-371.
- 성한기(1989). 보수성향의 극화에 관한 종단적 접근: 대학경험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8권, 35-46.
- 성한기(1991). 집단극화연구의 개관: 1961-1990.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권 1호, 20-42.
- 성한기(1996). 집단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영향: 집단극화의 동기적 기제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권 1호, 99-113.
- 성한기(1998). 정보출처와 정보유형이 집단극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기독교대학교 연구논문집, 58집, 317-342.
- 정지숙·한덕웅(1992). 확실/불확실 과제 수행에서 다수와 소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권 2호, 109-122.
- 최상진(1992).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 하나의 자기발견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92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최훈석·한덕웅(1994). 내/외집단 범주화된 다수와 소수의 사회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권

- 2호, 124-141.
- 한덕웅(1990).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5권 1호, 24-58.
- 한덕웅(1994a). 내집단 정체성, 영향원 규모 및 과제 모호성에 따른 사회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권 1호, 191-203.
- 한덕웅(1994b). 퇴계심리학: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권 2호, 1-28.
- 한덕웅(1996).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권 1호, 39-84.
- Abrams, D., & Hogg, M. A.(1990). Social identification, self-categorization and social influenc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 195-228.
- Abrams, D., & Hogg, M. A.(1998). Prospects for research i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 7-20.
- BarNir, A.(1998). Can group- and issue-related factors predict choice shift?: A meta-analysis of group decisions on life dilemmas. *Small Group Research*, 29, 308-338.
- Blascovich, J., Ginsburg, G. P., & Howe, R. C.(1975). Blackjack and the risky shift II: Monetary stak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224-232.
- Brauer, M., & Judd, C. M.(1996). Group polarization and repeated attitude expressions: A new take on an old topic.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7, 173-207.
- Brewer, M. B.(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75-482.
- Brewer, M. B., & Kramer, R. M.(1985).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219-243.
- Brown, R.(1974). Further comment on the risky shift. *American Psychologist*, 29, 468-469.
- Crott, H. W., & Werner, J.(1994). The norm-information-distance model: A stochastic approach to preference change in group inter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68-95.
- Deutsch, M., & Gerard, H. B.(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s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 Ellemers, N., Rijswijk, W. V., Roefs, M., & Simons, C. (1997). Bias in intergroup perceptions: Balancing group identity and social re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86-198.
- Forsyth, D. R.(1990). *Group dynamics*(2nd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 Goethals, G. R., & Zanna, M. P.(1979).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choice shif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69-1476.
- Hastie, R., Penrod, S. D., & Pennington, N.(1983). *Inside the ju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Hinkle, S., & Brown, R.(1990). Intergroup comparisons and social identity: Some links and lacunae. In D. Abrams and M.A. Hogg (Eds.), *Social iden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New York:Springer-Verlag.
- Hinsz, V. B., Tindale, R. S., & Vollrath, D. A.(1997). The emerging conceptualization of groups as information processors. *Psychological Bulletin*, 121, 43-64.
- Hogg, M. A.(1996). Intragroup processes, group structure and social identity. In W. P. Robinson(Ed.), *Social Groups and Identities: Developing the legacy of Henry Tajfel*.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Hogg, M. A., & Abrams, D.(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 and group processes. London: Routledge.
- Hogg, M. A., & McGarty, C.(1990). Self-categorization & social identity. In D. Abrams & M. A. Hogg(Eds.), *Social iden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New York: Harvester.
- Hogg, M. A., & Turner, J. C.(1987). Intergroup behavior, self-stereotyping and salience of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325-340.
- Hogg, M. A., Turner, J. C., & Davidson, B.(1990). Polarized norms and social frames of reference: A test of the self-categorization theory of group polariz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77-100.
- Insko, C. A., & Schopler, J.(1998). Differential distrust of groups and individuals. In C. Sedikides, J. Schopler & C. A. Insko(Eds.), *Intergroup cognition & intergroup behavior*.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Insko, C. A., Schopler, J., Hoyle, R. H., Dardis, G. J., & Graetz, K. A.(1990). Individual-group discontinuity as a function of fear and gre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8-79.
- Kaplan, M. F.(1987). The influencing process in group decision making. In C. Hendrick (Ed.), *Group Processes*.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Kaplan, M. F., & Miller, C. E.(1983). Group discussion and judgment. In P. B. Paulus(Ed.), *Basic group processes*. New York: Springer-Verlag.
- Kogan, N., & Carlson, J.(1969). Group risk-taking under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conditions in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0, 158-167.
- Lalonde, R. N.(1992). The dynamics of group differentiation in the face of def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36-342.
- Lamm, H., & Myers, D. G.(1978). Group-induced polarization of attitude and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1.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ne, J., & Moreland, R. L.(1998). Small group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New York: McGraw-Hill.
- Liu, J. H., & Latane, B.(1998). Extremitization of attitudes: Does thought- and discussion-induced polarization cumulat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0, 103-110.
- McCauley, C. R., & Segal, M. E.(1987). Social psychology of terrorist groups. In C. Hendrick (Ed.),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McGarty, C., Turner, J. C., Hogg, M. A., Davidson, B., & Wetherell, M. S.(1992). Group polarization as conformity to the prototypical group membe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1-20.
- Messick, D. M., & Mackie, D. M.(1989).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0, 45-81.
- Miller, N.(1978). A questionnaire in search of a theory. In L. Berkowitz(Ed.), *Group process*. New York: Academic Press.
- Moreland, R. L., Hogg, M., & Hains, S. C.(1994). Back to the future: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n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527-555.
- Moscovici, S.(1980). Toward a theory of conversion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New York: Academic Press.
- Mugny, G.(1982). *The power of minorities*. London: Academic Press.
- Mullen, B., Brown, R., & Smith, C.(1992). Ingroup

-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3-122.
- Myers, D. G.(1978). Polarizing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554-563.
- Myers, D. G., Bruggink, J. B., Kersting, R. C., & Schlosser, B.(1980). Does learning others' opinions change one's opin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6, 253-260.
- Myers, D. G., & Lamm, H.(1976). The group polarization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 602-627.
- Ng, S. H., & Wilson, S.(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belief polarization among Christian believers and atheis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47-56.
- Rugs, D., & Kaplan, M. F.(1993). Effectiveness of informational and normative influences in group decision making depends on the group interactive goa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 147-158.
- Skinner, M., & Stephenson, G. M.(1981). The effects of intergroup comparison on the polarization of opinions. *Current Psychological Research*, 1, 49-61.
- Sniezek, J. A.(1992). Groups under uncertainty: An examination of confidence in group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2, 124-155.
- Stasser, G., Kerr, N. L., & Davis, J. H.(1980). Influence processes in decision-making groups: A modeling approach. In P. 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Tindale, R. S.(1993). Decision errors made by individuals and groups. In N. J. Castellan (Ed.), *Individual and group decision mak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Turner, J. C.(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ler(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Vol. 2. Greenwich. C.T.: JAI Press.
- Turner, J. C.(1991). *Social influence*.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ckwell.
- Turner, J. C., & Oakes, P. J.(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Ed.),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Turner, J. C., & Oakes, P. J.(1997). The socially structured mind. In C. McGarty and S. A. Haslam (Eds.), *The message of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mind in society*. Oxford: Blackwell.
- Vinokur, A., & Burnstein, E.(1974). The effects of partially shared persuasive arguments of group-induced shifts; A group problem solv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05-315.
- Vinokur, A., Trope, Y., & Burnstein, E.(1975). A decision-making analysis of persuasive argumentation and the choice shift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127-148.
- Wetherell, M. S.(1987). Social identity and group polarization.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New York: Blackwell.

Wetherell, M. S.(1996). Group conflict and social psychology of racism. In M. S. Wetherell(Ed.), *Identities, groups and social issues*. London: Sage Publications.

Wilder, D. A.(1990). Some determinants of the per-

suasive power of in-groups and out-group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attribution of in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02-1213.

Group Polarization as a Function of Group Category, Ability of Information Sources and Response Styles

Han-Gee Seong and Doug-Woong Hah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and Sungkyunkwan University

Effects of response styles and information sources which were predicted differently from the three major theories of group polarization were tested against 112 female college students. Persuasive arguments theory predicts group polarization on private responses, social comparison theory predicts it on public responses, while self-categorization theory argues the polarizing effects on both response styles. According to self-categorization theory, only ingroup members can induce group polarization, but other two theories do not consider the source effects. It was assumed that response styles and information sources could be affected by the ability of ingroup/outgroup, and we hypothesized that group ability would influence subjects' private responses,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sources would affect subjects' public responses. The results confirmed these hypotheses. Other results showed that, as predicted, the amount of polarization on public responses was bigger than that on private responses and also the amount of polarization produced by an able group was larger than that by an unable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the nature of intragroup influence was discussed.